

조선조시대 소품 석공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mall stone crafts in the Cho Sun Dynasty

유해철(Hae-cheol, Yoo)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공예학부

이 논문은 1998학년도 청주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조선조시대 소품 석공예의 일반적 특성

- 2-1. 석공예품의 가치
- 2-2. 소품 석공예의 특성

3. 소품 석공예의 형식별 특성분석

- 3-1. 소품 석공예의 유형별 분석
 - 3-1-1. 일상생활용품
 - 3-1-2. 문방용품
 - 3-1-3. 도구
- 3-2. 소품 석공예의 표현기법상의 분석
 - 3-2-1. 문양 및 조각의 표현
 - 3-2-2. 재료별 형식의 표현

4. 결론

참고문헌

(요약)

조선조시대의 석재는 공예품 재료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건축 재료로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의장재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재 특유의 재질감과 미적 관점으로 서 수반, 주자, 화로, 베갯모, 필통 등 실용적인 생활용품과 장식품의 용도로 널리 사용 되었다. 석재는 다양한 재료와 선택에 따라서 크기, 수량, 운반, 가공방법의 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문제를 고려하여 제작되어 온 조선조시대의 소품 석공예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태와 문양, 재료의 선택 및 가공방법 등 전과정에 걸쳐 연구하고자 하였다.

조선조시대의 석공예품은 생활도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석공예품의 민예품은 제작목적이나 제작기술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사용자의 기호, 취미가 형태와 문양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수집된 관련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석공예품을 일상생활용품, 문방용품, 도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본 결과 일상용품의 대부분이 실용성을 강조하여 제작되었으며, 사용상의 특성을 살리어 불에 강한 납석재로 제작되었다. 더욱이 부엌에서 사용되었던 주방용품은 무문(無紋)으로서 기능성을 고려하였고, 안방에서 사용되었던 생활용품은 다양한 형식의 장식적 표현을 음각, 양각, 투각, 상감기법 등으로 조각하여 사용된 점이 특징이었다. 문방용품에 있어서는

장식적 효과와 용도에 따른 재료의 선정 등 심미성을 강조하여 표현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사용된 재료는 납석, 황옥, 청옥, 백석 등 다양한 재료의 선정으로 고루 분포되었다. 문양과 조각의 표현에 있어서도 장식적인 화려함을 엿볼 수 있었다. 도구에서는 섬세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석, 화강석 등이 널리 쓰여서 용도상의 특성을 살리어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Stone in the Cho Sun Dynasty has been used as the material of industry arts, widely building materials and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artistic design. But it has been generally used as an use of practical living product like, suban, a metal printing type, a fire place, a pillowcase, a pencil case, etc, and ornament with the quality of stone material and the aesthetic view. There are several problems as like size, quantity, delivery and processing method with the stne material according to its variety and selection. Accordingly it has been studied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shape, a material selection of design and processing method as well as studying about small stone crafts which were manufactured in the Cho Sun Dynasty, considering these problems.

Stone crafts in Cho Sun Dynasty has been widely used as a living tool. There was some what difference on manufacturing purpose on its technique of folk crafts of stone crafts, but, through the research of collected crafts, they were almost the same that social need, user's taste and hobby in those days were reflected in.

In the result of analysis as dividing the stone crafts into daily living product, stationery and tool, the major of daily products have been manufactured with emphasis of practicability. And they have been manufactured from agalmatolite for the prupose of use. Further, kitchen product had no design due to the function and living products which has been used in the main living room has been carved with the decorative expression of the various form by using intaglic, relieve, inlaid technique, etc. For the stationery, it has been characterized wwith aesthetic point considering the decorative effects & selection of material in accordance with use.

A material for manufacturing has been used in the range of agalmtolite, atopaz, a sapphire, white stone etc.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was noticeable that there was the spleudidness on the expression of design and carving. It was also noticeable that black stone and guanite have been widely esed because it didn't need the delicacy as a tool.

(KEY WORD)

small stone crafts

1. 서론

1-1. 연구목적

조선조시대의 석공예는 형식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지 않았으며, 조상이 남겨준 그대로를 고집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만의 독자적인 기예(技藝)를 전승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석재는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인간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조선조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예품재료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건축재료로서도 널리 쓰여져 왔으며 의장재료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재 특유의 제질감과 미적 관점으로서 수반, 주자, 화로, 베갯모, 필통 등 실용적인 생활용품과 장식품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석재는 다양한 재료의 선택에 따라서 크기, 수량, 운반, 가공방법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 문제를 고려하여 제작되어 온 조선조시대의 소품 석공예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태와 문양, 재료의 선택 및 가공방법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용도에 따른 재료의 선택, 형태에 따른 문양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우리 조상의 얼과 민족의 체취를 풍겨주는 민족적인 정서가 담겨진 전통의 고유한 양식을 현대의 창조적인 작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려는 의지와 함께 매우 소중한 뜻있는 일이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볼 때, 과거 우리의 공예 역사처럼 찬란하고, 독자적인 예도 드물었다.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공예품으로서 석공예가 지닌 표현양식을 분석 하므로써 특징과 장점을 살리어 전통양식의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고 한국공예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여 우리의 민중예술과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좌표설정과 방향제시를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구조미의 요소에 따른 분석을 항목별로 설정하여 일반성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석공예의 기본조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을 특징별 유형으로 나누어 석공예가 지닌 표현양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은 각 대학 박물관, 한국민속박물관, 고미술상, 개인소장가를 찾아서 사진기록과 실측을 하였으며, 문헌에 의한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고찰하였다. 수집된 연구자료는 이와같은 방법을 통하여 100여점의 관련 작품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석공예와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이나 조력(助力)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일부 민속을 다루는 글이나 발굴보고서 같은 것에서 표현 된 것을 참조할 수 있었으며,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조형적인 접근, 이를테면 형태, 문양이라던가 디자인의 분석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주제가 민속공예품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품석공예의 표현형식을 분석, 고찰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관적이고 논증의 제시에 보편 타당성이 약해진 점도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새로운 연구가 많이 나오길 기대하는 바이다.

2. 조선조시대 소품 석공예의 일반적 특성

2-1. 석공예품의 가치

일반적으로 민예(民藝)라 함은 그 나라의 고유한 토속적 기술과 전통에 바탕을 둔 민속공예품(民俗工藝品)을 말한다. 「민예는 향토의 재료를 살려서 이름없는 공인(工人)의 익숙한 수공예품(手工藝品)으로 똑같은 형태의 것을 대량생산하여 값싼 생활용기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지방의 특색과 생활의 전통을 보이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¹⁾ 「민예(FOLK CRAFT)라는 말은 원래 현대의 일본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민예라는 일본말의 어의(語義)는 민중적인 예술을 일컫으려는 것으로 되어 있다」²⁾

민예품은 한국전통공예로 특히 조선조공예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때 일상생활에 쓰이는 도구는 수공예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풍속이나 향토적인 특색과 재료의 특질(特質)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장인의 숙련된 기술에 의하여 민예품의 전통을 이어온 소박하고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민예품이란 민중적 예술이며, 생활의 필수품이었으며, 장인의 손끝과 지혜로 다듬어진 민족의 정서나 인간의 정서가 반영되어 온 조형물이며 전통물이다. 「전통(傳統)이란 일정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속에서 이루어진 정신적 경향이나 성격이 오랜 시대를 거쳐 전승되어 하나의 규범역할을 하는 힘이다.」³⁾

이 전통 민예품은 생활의 터전 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는 그 민족의 관습이나 사고, 잠재적인 미의식이 순수하게 노출되어 꾸밈없이 구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표현이 치졸(稚拙)하고 천진난만하여 성실성이 깊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사상, 행동, 기술이 내적 깊이로 표현되어 있으며, 의장이 독창성있게 다듬어져 있다. 또한 인위적인 조형을 최소한으로 줄여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화려하지 않고 간결의 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시대의 석공예품은 한서(寒暑)의 차가 많은 한국의 풍토에 순응하면서 길러진 고지식한 민족의 성격과 꾸밈새가 적은 표현애가 너그럽고 억지가 없는 소박한 조형기질로 나타난 것이다」⁴⁾ 즉, 꾸밈새나 잔재주가 적고 은은한 정감이 스며있으며 솔직하고 성실검소한 기능미를 으뜸으로 삼게 된 것이다. 특히 석공예품에 표현된 그 적정한 비례와 간명(簡明)하고도 조출한 면분할이 보여주는 독창적인 조형은 석조미술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이례(異例)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질서가 잡혀있다.

민중적 호흡에서 우러난 조선조시대의 석공예는 작가의 개성이나 미의식이 불순하게 노출되지 않고 절박하고도 건실한 기능과 순수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그 내면에 깊은 맛을 지닌 영원한 멋으로 남겨지고 있다. 소품석공예가 지니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시대, 풍습, 전통문화는 표현형식이 다양하고, 우수한 기교는 제작자와 사용자의 은은한 정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조시대의 민중미술에 나타난 소박한 향토 장인의 소산으로서 덩덤하고 지나치게 원숙한 솜씨의 작품에 도달하였다.

그들이 본 일상용품, 문방용품, 도구는 느끼는 관념의 차이에 따라서 때로는 회화적이고, 동심(童心)일 때가 있지만, 한편으

1) 이경성: 공예론, 수학사, 21, (1966)

2) 최순우: 한국민예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1, (1978)

3) 이경성: 홍익미술, 제2권, 88, (1973)

4) 최순우, 박영규 공저: 한국의 목칠기구, 경미출판사, 5, (1981)

로는 엄숙하고 경건한 표현을 지니고 있으니, 이것은 일정한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순박하고 정직한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석공예품은 적절한 비례와 구성원리에 정확히 일치되는 창조품을 탄생시켰으며, 일상용품류에는 열을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납석재를 이용하여 꾸밈새 없는 구성으로 변화있게 표현되었으며, 문방용품류에는 납석, 대리석, 옥석 등을 사용하여 색채의 변화와 음양각의 문양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도록 재료의 선택을 했고, 단순한 것에서 섬세한 기법으로 제작되어 완벽한 기교의 극치를 이루었다. 도구류에는 오석, 화강암, 납석 등 단단한 재질의 석재로 제작되었으며, 용도에 따라서 양 음각으로 장식하였다. 이러한 민예품의 소재는 한국인이 이룩해 온 생활미의 여운을 대표할 수 있으며 석공예가 지닌 미적 감정은 차원높은 민족적인 상품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는 관광민예품의 용도로 개발하여 수준 높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할 수 있어야만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며, 이는 외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수출신장도 이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유산이라 하겠다.

2-2. 소품 석공예의 특성

조선조시대의 석공예는 실용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조형물로서 일상용품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두가지의 예술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석재를 이용한 공예품은 다양하고 그 수도 모든 공예품중에서도 수위를 차지한다.

「암산에서 돌을 떼어내서 그 돌을 사용함은 물론 큰 암면에는 그 암면에 직접 조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양상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돌과 친근하였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하니 돌이 아닌 다른 재료가 주체를 이루었는데도 중요한 부분은 석재를 사용한 점을 보면 돌에 대한 애착이 컸음을 알 수 있다.」⁵⁾ 이와같이 석재는 각종 석공예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료의 우수성으로서 광범위하게 일상용품으로 제작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석재를 사용함으로써 표출되는 미적 감각이나 제작기법 등에 관한 조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조선조시대의 석공예품은 생활도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석공예품으로서의 민예품은 제작목적이나 제작기술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사용자의 기호나 취미가 형태와 문양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음을 수집된 관련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석공예품은 일상생활용품으로부터 문방용품, 장식용품, 악기, 신앙물, 시설물, 도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유물은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⁶⁾

석재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고 해서 유물 전체가 공예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단순한 민구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으며, 또한 민속공예품이 아닌 것을 가려낸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용품으로서 소품을 중심으로 실용성을 겸비한 석공예품을 한정

하여 그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내려 석공예품을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1) 일상용품: 술, 약탕관, 쟁개비, 주전자, 신선로, 화로, 등잔, 촛대, 다리미, 향로, 향합, 분, 수반, 병호(甁壺), 석연지, 석침, 용기, 베갯모, 전골틀, 풍로, 시루, 촛대

(2) 문방용품: 벼루, 연적, 필통, 문진, 인함, 인주지(印朱池), 옥배(玉杯), 필가, 묵상, 담배함, 먹물항아리, 표주박

(3) 도구: 절구, 방아, 매편, 다듬이돌, 솥돌, 저울추, 약연, 석구(石臼), 수조(水漕), 도가니, 먹통, 석조(石鳥), 일시계(日時計)⁷⁾

위와같은 석공예품들은 대부분 실용성있는 생활용품이지만 그 만듦새와 쓰임새에 따라서 단순한 민구에 지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일상생활용품류는 음·양각으로 장식을 하였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불에 강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납석 재료로 제작되었다. 납석이란 기름처럼 반질반질하고 매끈한 돌을 뜻한다. 이 재료는 대체적으로 「납석(蠟石: 곱돌의 한가지, 인쇄(印材), 석필(石筆)을 만들었다. 규산질의 광물) 또는 해석(海石:속돌, 화산용암의 한가지, 다공질의 가벼운 돌, 물건을 가는데 쓰인다)으로 칭하는 것이지만 제작된 것만으로는 역시 까칠까칠하다.」⁸⁾ 조선조시대의 석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제작기간이 오래걸리는 것이다. 단단한 석재는 다른 재료와 같이 단기간에 제작될 수 없으므로 석공예품은 재료의 성격상 빠른시간에 만들 수가 없다. 석공예품은 석질에 거역하지 않고 그것과 화합하여 조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정이야말로 석공예품에 무거우면서도 부드러운 성질을 주는 원인이 된다. 똑같은 석재 이면서도 옥과 같은 것은 정교한 기술을 요하지만 「조선시대의 석공예품은 일상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단순미를 부여하는 요인을 이루고 있다. 강한 불에 견디는 솔이나 약탕관 등은 모두 견고해야 하며, 이것이 필연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낳는 요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⁹⁾ 장신구는 옥이나 수정 및 기타 보석으로 가공되었으며, 악기 역시 특수한 석재로 제작하였다. 세공을 요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신앙물은 화강석을 널리 사용하였다. 거칠게 쓰이는 민구도 흔히 화강석으로 만들었으나 다듬이돌, 솥돌, 도가니 등은 그 용도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각기 석재를 달리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화강석은 우리나라에 널리 있는 것이어서 주로 사용하는 편이지만 지방에 따라 특산되는 석재를 사용한 예도 적지 않다. 비교적 큰돌을 쓰이게 되는 민구나 신앙물, 시설물 등은 더욱 그러하다. 운송수단이 좋지 않은 탓으로 무리하게 용재로 삼은 경우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민간 석공예품은 손쉽게 얻어지는 돌을 필요에 맞춰 적당히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물건이 작거나 장식성이 요구되는 것 및 특수용도를 위한 것 등은 특수한 지역에서 채석하여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우량품을 가려 귀하게 사용되었다.

하어 그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내려 석공예품을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3. 소품 석공예의 형식별 특성분석

3-1 소품 석공예의 유형별 분석

7) 전개서: 열화당, 120, (1994)

8) 유종열 저, 심우성 역: 조선공예개관, 동문선, 185, (1997)

9) 야나기무네오시, 이길진 역: 조선과 그예술, 신구, 313, (1998)

5) 진홍삼: 한국의 석조미술, 문예출판사, 58, (1995)

6) 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119, (1994)

석공예품을 고찰하기 위하여 소품석공예의 유형을 넓은 의미에서 용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구, 문방구, 도구 등을 특징별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이에따라 항목별로 관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이에 본인은 원형의 특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여 보았다.

3-1-1. 일상생활용품

조선조시대에 있어서 실용성이 있는 기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문헌상으로는 지방에 따라서 특산물이 있다. 현재까지도 특산품이라고 지칭되는 것이 있는데 그 내력을 알아보면 어느지역에서나 대개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공예품이 소박한 물건들이었고 그래서 어느지방에서나 자급자족 했던데 기인하는 것 같다. 석공예의 일상용품도 대부분 실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임을 자료수집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일상용품을 살펴보면 주자(注子), 전골틀, 숯, 신선로, 화로, 풍로, 약탕기, 베갯모, 향로, 향합, 등잔, 촛대, 시루 등이 있다. 수집된 자료의 일상용품 중 주자는 27.27% 화로는 25.45%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이것은 일상용품 중 석공예품은 주자와 화로가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크기는 고와 장의 길이가 주자는 14.02 : 12.32cm이고 화로는 20.37 : 23.75cm로 대부분이 소품석공예로 제작되었다.

주자의 형태는 손잡이를 조각하여 전체적인 형태와 안정감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은 대나무나 금속으로 별도 제작하여 고리로 연결하여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4, 6, 7, 13, 14, 15 참조). 또한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만한 곡선을 이용한 원형으로 나타내었으나 (그림1, 2, 4, 5, 6, 7, 8, 9, 10 참조) 각면의 분할로 나타낸 형태의 주자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그림 3, 11 참조). 화로의 형태는 사각형(그림 32, 37, 38 참조)이나 원형으로 제작되었으나 사각형의 형태의 대부분은 음,양각의 문양을 표현하여 장식성을 높였으며, 원형이나 팔각형에서도 음,양각의 문양으로 장식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그림 28, 30, 31, 36, 39 참조). 또한 손잡이 부분을 장식하여 문양을 표현하여 섬세함을 더하였으며(그림 28, 39 참조), 또한 손잡이 부분을 다른 재료로 고리를 연결시켜 사용상에 기능성을 고려한 화로도 있다(그림 27, 29, 31, 33, 36 참조). 숯은 전체의 9.09%, 신선로와 베갯모 7.27%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고·장의 길이가 숯은 17.8 : 25.4cm이고, 신선로는 18.15 : 23.87cm이며, 베갯모는 ϕ 10.92cm 이었다.

숯은 장식성이나 문양표현이 반영되지 않았고 등근형태로 실용성을 위주로 투박한 형태로서 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그림 18, 19, 20, 21, 22 참조). 신선로는 손잡이와 뚜껑을 같은 재료로 제작하였으며, 장식은 구름문양을 강조하여 나타내었다(그림 23, 24, 25, 26 참조). 베갯모는 장식성을 강조하여 제작된 것이 특징이었으며 재료에 있어서도 색상이 아름다운 재료를 사용하여 투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림 50, 52, 53 참조) 백색에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하여 (그림 51, 54, 참조) 여름철에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제작 사용되었다.

전골틀은 전체의 3.7%, 약탕기와 향로는 5.45%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크기는 소품석공예로 제작되었다. 고·장의 길이가 전골틀은 5.65 : 17.9cm이며, 약탕기는 9.3 : 14.8cm 이었다.

전골틀은 끓이는 그릇의 형태에 편리하도록 전을 넓게 만들었으며 불에 강한 납석재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흔히 '병거지' 를 엮어 놓은 것 비슷하다고 해서 '병거지골' 이라고도 부른다(그림 16, 17 참조). 약탕기의 형태는 주전자형, 「초두(初頭)형, 납작(후라이팬)형에 뚜껑이 있는 것, 없는 것, 손잡이가 한개 혹은 두 개 부착된 것, 없는것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주구(注口)가 달린 약탕기는 손잡이와 주구가 일직선이거나 90° 가 보통이다. 그중 90° 를 하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예의를 표할 때에는 오른손을 중히 여긴 습속을 약탕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¹⁰⁾ (그림 42, 43, 44 참조)

향로는 옥석이나 납석재로 제작되어 뚜껑이 있으며, 손잡이가 두 개 부착된 것 또는 없는 것도 있다. 다리부분은 두개나 세개가 부착되어 뚜껑부분을 투각으로 장식하여 섬세한 질감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70, 71, 72 참조)

풍로, 향합, 등잔, 촛대, 시루 등은 현존 유물이 제일 적으나 그 장식이 실용과 효용의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소재에 따른 진실하고 소박한 형태를 추구하여 제작되었다(그림 41, 69, 75 참조).

특히 촛대는 석재를 깎아 만든 것으로 받침대에 거북을 조각하였다. 위의 기둥은 팔각 장고형으로 위로가면서 좁아지는 형상으로 촛불받이도 기둥과 같이 팔각통형으로 깎았다. 「받침의 거북은 원래 용, 봉황, 기린과 함께 사령(四靈)으로 불리며 장생과 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촛대에 사용된 뜻은 거북이 불에 살기 때문에 불이나는 것을 막아달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하겠다」¹¹⁾ 목재나 금속재 촛대들과 달리 투박하고 소박하면서도 정겨움이 느껴지는 촛대이다.(그림 80 참조)

(표 1) 일상생활용품의 유형별 비교표

일상용품	크기	평균치(cm)	계(59)	비율(%)	재료
주자	고	14.02	15	27.27	납석 14, 청옥 1
	장	12.32			
전골틀	고	5.65	2	3.7	납석
	장	17.9			
숯	고	17.8	5	9.09	납석
	장	25.4			
신선로	고	18.15	4	7.27	납석
	장	23.87			
화로	고	20.37	14	25.45	납석
	장	23.75			
풍로	고	28.5	1	1.81	납석
	장	23.4			
약탕기	고	9.3	3	5.45	납석
	장	14.8			
베갯모	고		4	7.27	백석 2, 옥석 2
	장	ϕ 10.92			

10) 고의약기도록: 한독의약박물관, 33, (1979)

11) 조선후기국보전: 삼성문화재단, 232, (1998)

항로	고	12.5	3	5.45	납석1, 옥석1, 황옥1
	장	10.4			
항합	고	9.5	1	1.81	납석
	장	9.5			
등잔	고	27.5	1	1.81	백석
	장	16			
촛대	고	47.5	1	1.81	납석
	장	18.7			
시루	고	21.9	1	1.81	납석
	장	29.5			

3-1-2. 문방용품

문방제구란 문방에 갖추어두고 사용하는 모든 기물을 뜻한다. 「문방은 문사(文士)의 방, 즉 선비의 방을 의미하며 이는 서재 또는 사랑방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방사우를 편리하게 보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방제구가 필요하였다. 문방사우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듯이 문방 제구들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¹²⁾ 문방제구는 매우 다양하므로 지, 필, 묵, 연의 관련된 문방제구가 많은 편이다.

석공예품 중 수집된 문방용품을 살펴보면, 필통, 연적, 담배함, 묵상, 재떨이, 인함, 필가, 먹물항아리, 표주박, 문진 등이 있었으며, 그 중 담배함과 필통이 각각 31.81%, 22.7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담배함, 필통이 석재 문방용품으로서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하겠다(표 2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문방용품의 크기는 고·장의 길이가 가장 큰 것은 13.16 : 14.06cm로 소품이었으며, 이는 재료의 특성상 큰 용품을 만들 수 없는 제한된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석재 담배함의 형태를 살펴보면 장방형, 원형, 사각형으로 합을 만들어 똑같은 재료로 뚜껑을 덮는다면, 다른 재료로 뚜껑을 덮고 문양을 시문하여 색상의 대비로 장식성을 높였으며,(그림 57 참조) 또는 손잡이가 있는 것, 없는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6 참조). 고·장의 길이가 필통은 13.16 : 14.06cm이고 담배함은 11.07 : 10.75cm이었다. 연적 및 표주박은 전체의 9.09%이고 고·장의 길이가 각각 5.9cm 8.85cm이며 $\phi 6.47$ cm이다. 연적의 형태는 원형, 주자형, 8각형으로 만들어져 같은 재료로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76, 77 참조). 표주박은 손잡이 부분을 호랑이형으로 깎아 조각하였다. 호랑이형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벽사와 길상을 상징하는 영물로 우리선조들의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그림 79 참조). 묵상, 재떨이, 인함, 필가, 먹물항아리, 문진 등은 현존하는 유물에서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가 소품들로서 섬세하고 다양한 문방유물이다.

묵상은 먹을 건조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하여 제작된 상자이다. 먹의 보관시 습기가 많으면 윤기가 없어지고 건조하면 갈라지므로 보관에 어려움이 많아 석재 묵상을 제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상자였다(그림 62 참조). 필가는 붓을 놓아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석으로 제작하여 붓을 놓을 수 있는 부위를 모퉁이로 조각하여 사용하였다(그림 73 참조). 먹물항아리는 납석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뭇잎 문양 조각을 섬세하게 양음각으로 표현하여

12) 조선시대문방제구: 국립중앙박물관, 165, (1994)

제작되었다. 이것은 쓰다남은 먹물을 담아두었던 것으로 상상속의 복숭아형태를 조각하였다(그림 74 참조). 문진은 글을 쓰거나 읽을 때 종이가 펼쳐지는 것이나 말리는 것을 펴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를 서진(書縑)이라고도 한다. 전면에 모란문을 양각으로 장식하였다(그림 82 참조). 인함은 옥석으로 합을 만들고 뚜껑의 중앙에 문자를 음각하였으며 내부에는 인주합1개와 인재 5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그림 78 참조).

(표 2) 문방용품의 유형별 비교표

문방용품	크기	평균치(cm)	계(23)	비율(%)	재료
필통	고	13.16	5	22.77	황옥2, 백석, 납석, 옥석
	장	14.06			
연적	고	5.9	2	9.09	청옥, 황옥
	장	8.85			
담배함	고	11.07	7	31.81	청옥, 황옥, 납석, 백석
	장	10.75			
묵상	고	4.1	1	4.54	납석
	장	3.8			
재떨이	고	8.3	1	4.54	납석
	장	6.5			
인함	고	7.6	1	4.54	옥석
	장	6.5			
필가	고	1.4	1	4.54	백석
	장	4.3			
먹물항아리	고		1	4.54	납석
	장	$\phi 14.5$			
표주박	고		2	9.09	납석
	장	$\phi 6.47$			
문진	고	1.4	1	4.54	납석
	장	15.5			

3-1-3. 도구

수집된 석공예품의 자료중 도구를 살펴보면, 다듬잇돌, 약연, 먹통, 맷돌, 약절구, 저울추, 석조(石鳥), 일시계(日時計) 등이 있으며 그 중 맷돌이 전체의 25%, 다듬잇돌은 약연과 함께 16.67%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먹통, 약절구, 저울추, 석조, 일시계 등은 8.33%로 각각 1개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맷돌과 다듬잇돌이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3 참조). 맷돌의 형태를 살펴보면 보통의 맷돌은 맷방석이나 합지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도록 된 것이 대부분의 형태이지만 본고에서 다른 맷돌은 하부에 받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올려놓을 필요없이 주둥이에 그릇만 받치면 되는 발달된 수준의 형태로서 주둥이에는 용이, 위작 표면에는 승천하지 못한 용인 이무기가 조각되었다. 용이 이무기를 등에 업고 있는 특이한 형상이다. 이는 나쁜 것은 물리치고 좋은 것만 안에 들이도록 하려는 주술적 바램을 조형화한 것이다(그림 90 참조). 다듬잇돌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생활 도구이다. 오석을 깎아 만든 장방형으로 네모난 다리와 옆구리에는 부귀의 상징인 구름문양, 인사귀 문양을 조각하였다. 이것은 여인들의 생활용구에 멋스러움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밑바닥에는 좁쌀같은 작은 구멍이 수 없이 파져 있다. 이

는 짐승의 배를 뜻하는 모습으로서 옛 장인의 세심하고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93참조).

약연을 살펴보면 배 또는 반달 형태의 받침은 대지를 뜻하기도 하며, 그 파인 홈은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하였으며, 둥근 공이는 「태양과 남성을 뜻하여 동적으로 되어 있어 음양설에 부합된다. 음과 양의 이상적인 화합에서 바른(正)것이 생기며(느) 질병의 완치 또한 그러한 이론에서 찾았다. 실제기구의 요(凹)와 철(凸)이 잘 합치되어야 약이 잘 갈아지기도 하지만 이는 대지위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의 형상을 본떠 광명에의 기원을 표현한 전형적인 약을 가는 기구이다.」¹³⁾ (그림 87참조)

먹통은 수평 수직으로 먹줄을 튕겨 금을 긋는데 쓰이는 목공용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것이 상례인데 석재 먹통이 한점 수집 되었다. 이것은 해태 모양을 갖고 있으며, 입을 통하여 나온 먹줄은 나무, 들쥐에 먹선으로 정확히 재어진 길이를 표시 한다. 이는 해태, 용, 이무기 등 여러 가지 동물 형태로 만들었다. 이것은 건물이나 민예품이 오랜 화마 또는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그림 86참조). 석조는 돌로서 단순화시킨 새의 형태를 만들고 바닥은 방형의 대로 처리하였다. 눈은 음각으로 들레를 파내고 깃털도 음각으로 간단히 처리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석조는 마을 입구에 석재 간주(竿柱)위에 놓여 잡귀, 잡신을 막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그림 81참조). 일시계는 해시계로서 천문과 역법에 관한 연구는 인간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오랜 옛날부터 연구되어 왔다. 이것은 대리석 일시계 위에 글자와 그림을 음각하여 관측 사용하였다(그림 89참조). 저울추는 타원형, 원형 등으로 다듬어 꼭지에 달아매도록 고리를 만들어 사용되었다(그림 83참조).

(표 3) 도구의 유형별 비교표

도구	크기	평균치(cm)	계(23)	비율(%)	재료
다듬잇돌	고	11.5	2	16.67	화강암, 오석
	장	19.5			
약연	고	.	2	16.67	화강암
	장	60.5			
먹통	고	5.8	1	8.33	납석
	장	20			
맷돌	고	39.8	3	25.0	화강암
	장	33.5			
약절구	고	32.5	1	8.33	화강암
	장	28.0			
저울추	고	4.2	1	8.33	화강암
	장	11.8			
석조	고	6	1	8.33	납석
	장	25.8			
일시계	고	1.5	1	8.33	대리석
	장	3.2			

3-2. 소품 석공예의 표현기법상의 분석

3-2-1. 문양 및 조각의 표현

13) 전계서: 한옥의약박물관, 13, (1979)

문양(紋樣)이라 하면 보편적인 의미로서는 단순히 「무늬」를 뜻하지만 더 큰 의미의 문양은 건축이나 공예의 전체 또는 부분, 그리고 공간구성의 한 요소로서도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의 공예미술에 보이는 문양은 대부분 표현양식 자체가 청렴하고 소박하며 자유로운 선과 색채로서 이루어진 표현이 많다. 이것은 대량생산에 의한 기계적이고 세련된 것이 아니고, 과장되거나 다채롭고 복잡하지 않으며, 정형적(整形的)이 아닌 것을 특징으로 이루어 왔다」¹⁴⁾

「석공예품에 나타난 문양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첫째, 단독형식, 둘째, 연속문양형식, 셋째는 기하학적 형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⁵⁾ 연속문양형식은 연화, 국화 등으로 새나 짐승 곤충류를 단독으로 배치한 문양을 말한다. 연속무늬형식은 식물이나 곤충류 등을 연속적으로 전개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당초문 계통을 말한다. 기하학적 형식은 뇌문, 와문, 동심원문, 거치문, 파상문 등을 말한다.

석공예는 재료의 특성상 문양의 장식도 음각, 양각, 투각 또는 상감기법으로 시문하여 장식하였다. 또한 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단하고 다루기 어려운 재료에는 음각이나 양각의 기법을 이용하여 문양을 장식하였으며(그림 100, 107, 112, 114, 115, 116, 117참조), 옥석, 백석 등의 재료에서는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그림 96, 109, 110, 111참조). 투각을 이용하여 문양을 장식한것(그림 95, 98, 115 참조)은 베갯모, 필통 등으로서 청옥이나 대리석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투각장식 하였다.

소품석공예에 나타난 문양의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4 참조>. 일상용품에 있어서 문양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전체의 59.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납석재를 이용하여 불에 사용하는 일상생활용구에 빈번하게 이용하는 용품이므로 장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주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각이나 양각으로 장식을 표현한 것은 각각 10.2%로서 이것은 화로, 석합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석공예품은 방에 놓아두고 사용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장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널리 문양의 표현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감기법, 투각, 색채의 재료를 사용하여 베갯모, 향로, 주자 등에는 장식을 표현 하였다.

문방용품은 무문(無紋)이 21.75%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각으로 표현된 것은 21.75%로서 필통, 담배함, 먹물항아리, 필자표주박, 문진 등의 소품으로서 장식성을 강조시켜 표현하여 선비들의 사랑을 받은 귀중한 필수품 이었다. 또한 재료의 색상을 따로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문방용품도 39.15%로 나타났으며, 상감기법, 투각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도 각각 8.7%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문방용품에 있어서는 문양표현기법을 응용하여 제작된 것이 대부분 이었다. 도구에 있어서는 양각으로 나타난 석공예품이 83.3%로 나타나고 있다. 음각의 표현은 8.33%이었으며, 무문(無紋)은 8.33%이고 도구에 있어서는 양각, 음각으로 표현된 것은 전체의 91.63%로서 대부분 문양표현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품 석공예에 나타나는 문양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당초문: 「연당초문과 보상 당초문의 경우는 바탕무늬가

14) 임영주: 한국전통문양자료의연구, 디자인포장10권, 26~27, (1972)

15)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27, (1983)

되면서 주제를 이룬다. 연꽃과 덩굴이 얽히고 설켜서 구성된 무늬로서 고려시대 공예의장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6) 이것은 모란당초문 국당초문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고려시대 문양에서 특징적으로 쓰여졌던 당초문 형식이다. 이것은 연화, 보상화당초문과 같이 불교적인 문양으로 사용되었다(그림 116, 117 참조).

② 문자문: 길상(吉祥)을 나타내는 한자를 장식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문양으로서 민예적인 기물에 많이 시문되었다. 부귀다남(富貴多男), 수복강녕(壽福康寧), 다남자(多男子) 등의 문자를 삼다라 일컫는 다복, 다수 다남자의 신앙을 비롯하여 유교의 가르침이나 자신의 가족, 마을,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숭상하는 어진 뜻을 담아서 후손들에게 교훈적인 의미를 전해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수(壽)자와 복(福)자의 글자만으로 도안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한 수복도(壽福圖)가 다양하게 전한다」17). 또한 희(囍)자는 조선시대 후기에 민예적인 글자로서 다양한 기물에 시문 되었으며 의문(衣紋)으로 많이 쓰여졌던 길상문자(吉祥文字)이다(그림 97, 100, 105, 109, 110, 111, 114 참조).

③ 태극문: 태극은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의 상태로써 우주만물 구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본체를 일컫는다. 그 형상은 2태극·3태극·4태극 등으로 분류된다. 「주역」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천지만물은 「음양이원론(陰陽二元論)」으로 성립 되었다고 한다.(그림 97, 96참조)

④ 화훼문(花卉紋): 흔히 사군자(四君子)라 부르는 매(梅),란(蘭), 국(菊), 죽(竹)과 석류, 천도, 연화, 모란 등을 말할 수 있다. 연화문을 제외하고는 주로 조선후기에 많이 쓰여졌다. 국화문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고려시대 이후 들국화의 청초하고 선비다운 기품은 사랑방 기물에 그 기품을 더해 준다. 보상화문은 특히 불교적인 상징의 꽃으로 화엄 미려한 소재이기도 하다. (그림 101, 106 참조)

⑤ 운기문(雲氣紋): 구름의 표현 형태는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것에서 극도로 도식화된 모양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게 변화되어 표현 전개되고 있다. 즉, 유문, 점운, 비운, 와자운, 보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름무늬는 주로, 구름과 용, 구름과 학, 구름과 봉황, 구름과 칠보문, 구름과 꽃 등 복합적인 문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95, 98 참조)

⑥ 학문양: 학은 천년을 살며, 장수를 상징하여 옛부터 금류의 종장이라 하였고 일품조(一品鳥)라고 불리어 왔다. 이것은 배젓모에 시문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95, 98 참조)

(표 4) 소품 석공예의 문양표현기법 분석표

유형별	표현기법						계
	무문	음각	양각	상감기법	투각	채색	
일상용품	수량	35	6	6	4	5	59
	비율	59.5	10.2	10.2	6.8	8.5	100
문방용품	수량	5	·	5	2	2	23
	비율	21.75	·	21.75	8.7	8.7	39.15

16) 오근재: 한국문양의 전개, 미진사, 10, (1987)

17)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제1권, 예원, 198, (1998)

도구	수량	1	1	10	·	·	·	12
		비율	8.33	8.33	83.3	·	·	·
계	수량(개)	41	7	21	6	7	12	94
	비율(%)	43.46	7.42	22.26	6.36	7.42	12.72	100

조선조시대 소품 석공예의 문양



(그림95)배젓모(운학문)



(그림96)배젓모(운학문)



(그림97)배젓모(태극문)



(그림98)배젓모(쌍학문)



(그림99)배젓모(구름문)



(그림100)담배함(수자문)



(그림101)주전자(국화문)



(그림102)손화로(목단문)



(그림103)담배함(목단문)



(그림104)필통(십장생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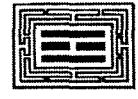
(그림105)손화로(희자문)



(그림106)석함(국화문)



(그림107)손화로(늪문)



(그림108)담배함(팔괴문)



(그림109)필통, 손화로(수자문)



(그림110)필통(희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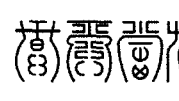
(그림111)필통, 손화로(복자문)



(그림112)손화로(팔괴문)



(그림113)신선로(구름문)



(그림114)화로(복자문)



(그림115)필통(등심원문)



(그림116)문진(당초)



(그림117)다듬잇돌(당초문)

3-2-2. 재료별 형식의 표현

조선조시대의 석재산지는 정확한 분포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석공예품 분포상황의 석재산지에 대한 언급을 한 문헌이 없을뿐더러 귀한 용재이기 때문에 본 논제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의한 재료별 분석표에 의존하여 분석하고자 한다(표 6참조).

「일반적으로 석재에 있어서도 백옥, 백옥석, 백석, 옥석, 청옥, 청옥석, 청석의 예와같이 표기상에 다소 혼란이 보인다. 청석류로서 청난석이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수난석이 어떤 석질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명칭상의 정리가 필요하다. (표5 참조) 석재의 산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옥류의 석재이었다. 즉, 백, 청, 남, 주, 흑색의 옥들은 우리 나라의 35개 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문헌상에 기록되었다.」¹⁸⁾

(표5) 석재별 명칭 일람표

옥석(玉石):옥돌	수정석(水精石·水晶石):수정
백옥(白玉):흰옥돌	오수정(烏水精):흑색수정
청옥(靑玉):청색옥돌	경석(靑石):경(靑)을 만드는 경질의 돌
황옥(黃玉):황색옥돌	청석(靑石):곱돌
감옥(監玉):쪽빛 옥돌	청연석:연초합을 만드는곱돌
오옥(烏玉):검은 옥돌	화장석·장석:홍백의 무늬가 있는 연질곱돌
주옥(朱玉):붉은 옥돌	광석(光石):미려한 돌
사색석(四色石):청,황,백옥이 섞인 옥돌	활석(滑石):곱돌
옥등석(玉燈石)·등석(燈石):옥등잔을 만드는 흰옥돌	구석:술·화로등을 만드는 결정이 큰 곱돌
연석(硯石):버릇돌	연석:얇게 켜서 떨어지는 돌
주석:불그레한 버릇돌	수포석:다연질의 경석,채석
오석(烏石·烏硯石):검은버릇돌	석종:석회 동굴의 돌로 해재·약재로 쓰임
광석(礬石):숫돌, 특수세공품으로도 이용	호석:산재,분필,조각 재료로 쓰이는돌
청마석(靑礬石):푸른숫돌	마석:송진과 같은 광택이 있는 차들의 한 가지
백광석(白礬石):흰 숫돌	

옥은 경옥(硬玉)과 연옥(軟玉)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다리아몬드」「루비」「싸파이어」등과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하며 「비취」「산호」등을 옥이라는 말로 대칭(代稱)하기도 한다. 또한 납석으로 석기를 만드는 전남 해남에서는 이것을 「옥돌공예」라 부른다.

조선조시대의 석재 일상용품을 살펴보면 납석, 청옥, 황옥, 백석, 옥석, 주석 등이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일상용품의 대부분의 재료가 납석이 84.5%이었으며 백석과 옥석재의 용품이 각각 5.1%이었으며 청옥, 황옥, 주석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일상용품은 1.7%로 나타나고 있다.

문방용품은 전체의 43.5%가 납석재로 제작되었으며, 황옥과

18) 전게서: 열화당, 125~126, (1994)

백석을 사용한 문방용품은 각각 17.4%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옥재가 사용된 것은 13.1%이며, 옥석재를 사용한 것은 8.7%로 제일 낮은 분포를 이루었다.

도구에서는 납석재를 사용한 것은 16.6%이었으며, 오석 및 대리석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는 각각 8.3%, 화강암을 이용하여 제작된 도구는 전체의 66.4%로 대부분의 도구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조선조시대에 있어서 소품석공예는 대부분 납석재를 활용하여 제작된 것이 전체의 65.95%로 실생 활용품에 납석재를 주재료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조시대의 유형별 재료분포를 살펴보면 불에 많이 이용되는 용품 즉, 주자, 전골틀, 숟, 신선로, 화로, 풍로, 약탕기 등의 재료는 납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석재의 재질감을 그대로 나타내어 연마하여 광택을 내어 사용되었으며, 화로, 신선로 같은 용품은 방안의 실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음·양각의 문양이 표현되어 제작 사용되었다. 그러나 필통, 베갯모, 담배함, 향로, 표주박, 촛대, 문진 등은 작은 소품으로서 방안의 실내에 놓아두고 사용되는 것들로서 장식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색상이 아름다운 석재인 황옥, 청옥, 백옥 같은 천연재료로 사용하여 음·양각으로 표현되거나 투각, 상감기법으로 시문하여 장식성을 높이었다. 그러나 약절구, 맷돌, 다듬잇돌은 곡물이나 옷감을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석재로 제작하였다.

(표 6) 소품 석공예의 재료별 분석표

재료별	유형별		일상용품		문방용품		도구		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개)	비율 (%)
납석	50	84.5	10	43.5	2	16.6	62	65.95		
청옥	1	1.7	3	13.1	.	.	4	4.25		
황옥	1	1.7	4	17.4	.	.	5	5.36		
백석	3	5.1	4	17.4	.	.	7	7.44		
옥석	3	5.1	2	8.7	.	.	5	5.31		
주석	1	1.7	1	1.06		
오석	1	8.3	1	1.06		
대리석	1	8.3	1	1.06		
화강암	8	66.4	8	8.51		

4. 결론

공예를 언급할 때는 극히 세련되고 고도의 기능에 의해 제작된 것에 한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시말해서 특수계층이 사용하던 극소수의 귀족적인 유물에 대해서만 거론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일반대중의 생활용품이라고 해서 결코 공예미를 지니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특수층의 제한된 유물은 정교함이 지나쳐 조잡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고, 혹은 외래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어설픈 모작의 꼴이 된 예가

얼마든지 있다. 일반 민구는 굳이 정교를 다하려고 욕심내지 않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래서 민간용품은 사치하게 장식화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오랫동안 민중의 감각에 의해 다듬어진 나름의 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을 일컬어 가장 한국적인 민예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선조시대의 석공예품을 두루 살핀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알루미늄, 양은그릇의 보급으로 인하여 갑자기 자취를 감춘 우리나라의 석공예품은 한 동안 버림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상품에서 실용성을 겸할 수 있는 석공예품이 전하여 오므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석공예품은 제작목적이나 제작기술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작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사용자의 기호나 취미가 형태와 문양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석공예품은 우리생활 도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일상용품, 문방용품, 도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본 결과 일상용품의 대부분이 실용성을 강조하여 제작되었으며, 사용상의 특성을 살리어 불에 강한 납석재료로 제작되었다. 더우기 부엌에서 사용되었던 주방용품은 무문(無紋)으로서 기능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안방에서 사용되었던 화로, 베갯모, 향로, 촛대 등은 다양한 형식의 장식적 표현을 음·양각, 상감기법, 투각 등으로 조각하여 사용된 점이 특징이었다.

문방용품에 있어서는 장식적 효과와 용도에 따른 재료의 선정 등 심미성을 강조하여 표현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납석, 황옥, 청옥, 백옥, 등 다양한 재료의 선정으로 고루 분포되었다. 문양과 조각의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양으로 음·양각, 투각, 상감기법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장식적 화려함을 엿볼 수 있었다.

도구는 세공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석, 화강석 등이 널리 쓰여져 용도상의 특성을 살리어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불과 100여점의 자료만으로 조선조시대 소품석공예의 형식을 파악한다는 것이 미비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석공예연구가 수행(遂行)되어 자랑스러운 전통석공예품을 가꾸고 이어 나가는 데에 참고적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이경성, 공예통론, 수확사, 1966
- 이경성, 홍익미술, 제2권, 1973
- 최순우, 한국민예미술, 국립중앙박물관, 1978
- 최순우, 박영규 공저, 한국의 목칠가구, 경미출판사, 1981
- 진홍섭, 한국의 석조미술, 문예출판사, 1995
- 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1994
- 유종열외, 심우성외, 조선공예개관, 동문선, 1997
- 야나기무네요시, 이길진역, 조선과 그예술, 신구출판사, 1998
- 임영주, 한국전통문양자료의 연구, 디자인포장10권, 1972
-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83
-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제1권, 예원출판사, 1998
- 오근재, 한국문양의 전개, 미진사, 1987
- 고의약기도록, 한독의약박물관, 1979
- 조선후기국보전, 삼성문화재단, 1998
- 조선시대문방제구, 국립중앙박물관, 1994
- 온양민속박물관도록, 온양민속박물관, 1979

석재 공예품 일람표(단위cm)



(그림1) 주자
납석/흑/14.2×15.5



(그림2) 주자
납석/흑/12×10



(그림3) 주자
납석/흑/13×14.5



(그림4) 주자
납석/흑/13.8×13.5



(그림5) 주자
납석/흑/10.3×12.6



(그림6) 주자
납석/흑/15.5×17



(그림7) 주자
납석/흑/14.3×15



(그림8) 주자
납석/음각문/흑/
11.2×10.7



(그림9) 주자
납석/양각문/흑/
13×15.2



(그림10) 주자
납석/흑/9.8×10.7



(그림11) 주자
납석/흑/10.8×11.7



(그림12) 주자
납석/흑/9.5×15



(그림13) 주자
납석/흑/13.5×17.5



(그림14) 주자
납석/흑/14.5×20.5



(그림15) 주자
청옥/청/9.5×11



(그림16) 전골들
납석/흑/19×6



(그림17) 전골들
납석/흑/16.8×5.3



(그림18) 솔
납석/흑/11×12



(그림19) 솔
납석/흑/33×20



(그림20) 솔
납석/흑/20×16



(그림21) 솔
납석/흑/31×21



(그림22) 솔
납석/흑/32×20



(그림23) 신선로
납석/흑/23×17.3



(그림24) 신선로
납석/흑/29.5×19



(그림40) 화로
주석/흑/24.5×22.8



(그림41) 풍로
납석/흑/19×12



(그림42) 약탕기
납석/흑/17×11



(그림25) 신선로
납석/흑/23×17.3



(그림26) 신선로
납석/흑/20×19



(그림27) 화로
납석/흑/16.7×17.7



(그림43) 약탕기
납석/흑/15×9



(그림44) 약탕기
납석/흑/12.5×8



(그림45) 필통
황옥/투각문/적/13×14



(그림28) 화로
납석/음각문/흑/
26×21



(그림29) 화로
납석/음각문/흑/
17.5×18



(그림30) 화로
납석/양각문/흑/
28.5×20.8



(그림46) 필통
황옥/적/11.3×7



(그림47) 필통
백석/상감문/백/ 15×11



(그림48) 필통
납석/양각문/적/ 15×16



(그림31) 화로
납석/양각문/흑/
23×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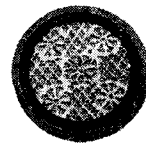
(그림32) 화로
납석/흑/21×26.5



(그림33) 화로
납석/흑/27×20.5



(그림49) 필통
옥석/청/16×17.8



(그림50) 베갯모
백석/투각문/백/10.5 φ



(그림51) 베갯모
백석/상감문/백/12 φ



(그림34) 화로
납석/흑/2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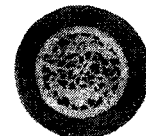
(그림35) 화로
납석/양각문/흑/
26.5×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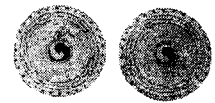
(그림36) 화로
납석/양각문/흑/
28.5×20.8



(그림52) 베갯모
옥석/투각문/청/11 φ



(그림53) 베갯모
옥석/상감문/청/11.1 φ



(그림54) 베갯모
백석/상감문/백/10.1 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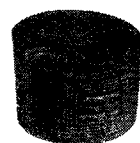
(그림37) 화로
납석/음각문/흑/
25.6×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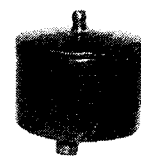
(그림38) 화로
납석/양각문/흑/
24×21.5



(그림39) 화로
납석/음각문/흑/
23.8×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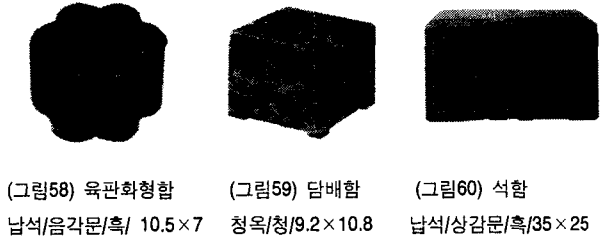
(그림55) 원형함
납석/흑/상감문
9.5×7.5



(그림56) 원형함
납석/흑/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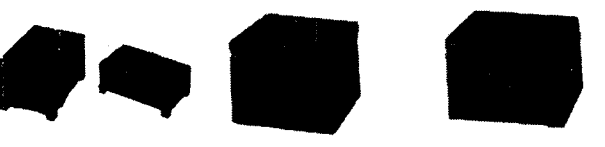
(그림57) 담배함
황옥/납석/상감문/흑/
7.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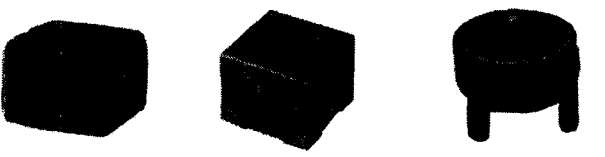
(그림58) 육관화형함 납석/음각문/흑/ 10.5×7
 (그림59) 담배함 청옥/청/9.2×10.8
 (그림60) 석함 납석/상감문/흑/3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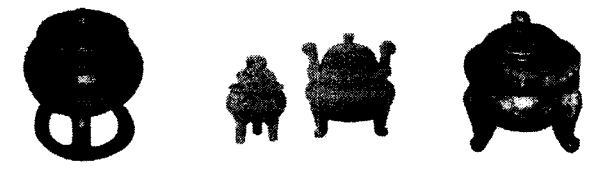
(그림61) 담배함 백석/백/6.8×12.8
 (그림62) 묵상 납석/흑/3.8×4.1
 (그림63) 담배함 납석/흑/11.5×14



(그림64) 담배함 청옥/청/21×11
 (그림65) 담배함 황옥/황/9×9.8
 (그림66) 담배함 납석/흑/10.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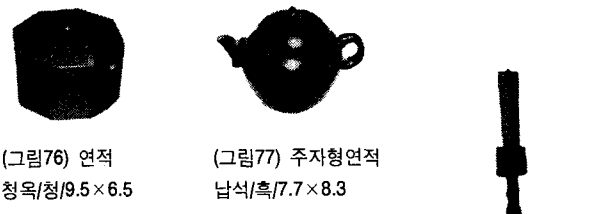
(그림67) 재떨이 납석/흑/6.5×8.3
 (그림68) 인함 옥석/음각문/황/6.5×7.6
 (그림69) 향함 납석/흑/9.5×9.5



(그림70) 향로 납석/흑/10.4×12.5
 (그림71) 향로 옥석/투각문/백/ 12.5×10.4
 (그림72) 향로 황옥/투각문/흑/ 12.5×10.4



(그림73) 필가 백석/양각문/백/4.3×1.4
 (그림74) 먹물항아리 납석/투각문/흑/14.5×7.7
 (그림75) 등잔 백석/백/16×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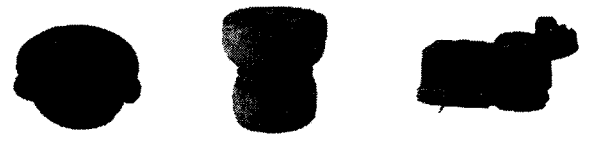
(그림76) 연적 청옥/청/9.5×6.5
 (그림77) 주자형연적 납석/흑/7.7×8.3



(그림78) 표주박 납석/양각문/흑/6.8×4
 (그림79) 표주박 납석/양각문/흑/6×14
 (그림80) 구형촛대 납석/양각문/흑/ 18.7×16.7×47.5



(그림81) 석조 납석/양각문/흑/25.8×6
 (그림82) 모란문문진 납석/양각문/흑/15.5×1.4
 (그림83) 저울추 화강암/흑/11.8×4.2



(그림84) 곱돌시루 납석/양각문/흑/ 21.5×29.5
 (그림85) 약절구 화강암/양각문/황/ 32.5×28×23
 (그림86) 먹통 납석/흑/양각문 20×5.8



(그림87) 약연 화강암/양각문/흑/70
 (그림88) 약연 화강암/양각문/흑/51
 (그림89) 일시계 대리석/음각문/백/3.2×1



(그림90) 멧돌 화강암/양각문/흑/ 33×40.6
 (그림91) 멧돌 화강암/양각문/흑/ 34×39
 (그림92) 멧돌 화강암/양각문/흑/ 32×38



(그림93) 다듬잇돌 오석/음각문/21×56×10
 (그림94) 다듬잇돌 화강암/양각문/18×13